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우월성과 불패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세계는 자기의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본다.

제국주의가 몰아온 광풍에 휘말려 이전 쏘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고 수천수만의 인민대중이 또다시 자본의 노예로 굴러떨어지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빚어진 20세기 후반기, 세계는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인민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세계는 조선의 모습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의 래일과 무너지는 제국주의아성을 내다보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선생님께서 계시여 새 세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는 세계력사에 대한 학습을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결부하여 심도있게 함으로써 지구상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당이 제일이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한다.

우리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제1장. 쏘련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과 좌절

제1절.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

1. 쏘련에서 인민경제의 복구와 사회주의건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쏘련인민은 쏘련공산당의 령도밑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은 전쟁시기 쏘련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7만개이상의 로동자구와 마을 및 농촌, 1 710개의 도시, 3만 2 000여개의 공장, 기업소가 파괴되였다.

난관은 그뿐이 아니였다. 쏘련인민은 전후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였다.

쏘련인민은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발전을 위한 제4차 5개년계획(1946년－1950년)을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쏘련근로자들의 앙양된 로력적열성에 의하여 공업분야에서 5개년계획은 4년 3개월에 끝났다.

계획기간에 6 200여개의 대규모공장, 기업소들이 복구 및 신설되였으며 1950년에 공업총생산액은 전쟁전인 1940년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였다.

이 시기 농촌경리부문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전쟁의 후과를 기본적으로 가시였으며 씨붙임면적이 20％이상 늘어났다.

인민경제가 복구발전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도 높아졌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서는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후시기 쏘련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게 되였다.

쏘련공산당은 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결정들을 채택하고 사상문화분야에서 부르죠아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문화예술부문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들에서 사상성이 높아지게 되였다. 이것은 제4차 5개년계획을 넘쳐수행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전후 어려운 시기 쏘련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방건설에도 큰 힘을 돌리였다.

쏘련인민은 1949년에 원자탄시험에서, 1953년에는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미제의 핵공갈책동에 대처할수 있게 되였다.

쏘련인민은 전후복구건설을 끝낸후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이러한 시기인 1953년 3월 5일 쓰딸린이 서거하였다.

그는 레닌의 위업을 계승하여 근 30년간 쏘련공산당과 쏘베트국가를 령도하면서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쏘련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쏘련인민은 인민경제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후 1985년까지 일곱차례의 5개년계획을 더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1985년에 쏘련의 공업은 세계공업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하였으며 전력, 원유, 석탄, 강철 등 공업생산은 세계에서 1～2위를 차지하였다.

쏘련의 농업부문도 크게 장성하여 1985년에 1억 9 170만t의 알곡이 생산되였다.

쏘련의 교육과학분야도 발전하여 10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우주정복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54년 6월 세계에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조업하였으며 1957년에는 세계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되였다. 그리고 1961년 4월에 유리 가가린이 탄 우주비행선이 력사상 첫 우주비행을 한후 우주정복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후 70년동안에 쏘련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들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할바없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동유럽나라들에서 인민정권의 수립과 민주개혁의 실시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도이췰란드의 지배하에 있던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쏘련군대가 들어옴으로써 새 사회건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속에서 동유럽나라들에서는 공산당, 로동당들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혁명에서 주권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승패와 그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은 매개 나라들에서의 혁명과 반혁명사이에 어느 력량이 강한가 하는데 따라 쉽게 혹은 힘들게 진행되였다.

이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벌가리아 등 나라들에서는 전쟁시기 반파쑈무장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공산당의 령도적지위가 확립됨으로써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이 비교적 쉽게 진행되였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1945년 11월 인민정권인 련방공화국을 창건하였는데 여기에는 쓰르비아, 흐르바쯔까,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슬로베니아, 마께도니아, 쯔르나고라 등 6개의 가맹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꼬쏘보, 보예보지나)가 가입되였다.

벌가리아와 알바니아에서는 공산당의 령도밑에 1946년에 각각 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력량관계가 엇비슷한 뽈스까,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공산당과 부르죠아망명정부 대표들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가 정부안에서 반동세력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그리하여 뽈스까에서는 1947년 2월에,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1948년 2월에 각각 인민정권을 수립할수 있었다.

혁명력량이 매우 미약하였던 마쟈르와 로므니아에서는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이 보다 힘들게 진행되였다.

전패국인 도이췰란드에서는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동부와 서부에

서로 다른 두개의 정권이 생겨나게 되였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후 동유럽나라들에서는 1945년－1949년사이에 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이 수립되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과 함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 민주개혁의 주요내용을 이루는것은 파쑈잔재의 숙청,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의 실시, 일부 나라들에서의 군주제의 청산 등이였다.

대부분의 락후한 농업국가들이였던 동유럽나라들에서 토지개혁사업은 제반민주개혁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의 토지개혁은 그의 수행기간과 몰수원칙, 분배원칙 등에서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토지개혁과 구별되는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우선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토지개혁이 여러 단계에 걸쳐 오랜 기간 진행되였고 토지몰수원칙에서도 토지몰수한도를 30～100ha까지 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몰수한것이였다. 또한 분배에서도 대부분 유상분배의 원칙이 적용된것이였다.

전후 동유럽나라들에서는 토지개혁과 함께 산업국유화를 실시하기 위한 투쟁도 진행되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산업국유화는 국내외원쑤들의 반항을 물리치면서 1949년 말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였다.

이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벌가리아, 뽈스까 등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산업국유화가 1～2단계에 걸쳐 비교적 빨리 끝났다. 그러나 마쟈르,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등 일부 나라들에서는 산업국유화가 3～4단계에 걸쳐 간고하게 진행되였다.

산업국유화가 실시된 결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자본가들과 외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되였으며 사회주의적경제토대가 마련되였다.

1940년대 말까지 제반민주개혁을 끝마친 동유럽나라들은 1950년을 전후하여 거의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에 착수하였다.

제2절. 쏘련에서 현대수정주의의 대두, 동유럽나라들에서 반혁명적반란

1. 쏘련에서 현대수정주의의 대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로 이끌어갔습니다.》

쏘련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붕괴과정은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외곡변질시키면서부터 시작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사상이 좀먹기 시작한것은 1950년대 중엽 수정주의분자인 흐루쑈브가 음모적방법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한 후부터였다.

흐루쑈브는 무엇보다도 선대수령인 쓰딸린의 사상과 업적을 헐뜯고 말살하기 위한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흐루쑈브는 1956년 2월에 있은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한 비밀보고에서 쓰딸린을 비난하고 수정주의로선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쓰딸린이 생존해있던 시기 그의 커다란 신임을 받아온 흐루쑈브는 쓰딸린을《경애하는 어버이》,《스승》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의《충실한 제자》로 자처하였다.

그러나 쓰딸린이 서거하자 흐루쑈브는 간신의 본심을 드러내놓았다.

흐루쑈브는 또한 쓰딸린을 옹호하는 진보적력량의 항의를 묵살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1956년 6월에 《개인숭배와 그 후과를 극복할데 대하여》라는 쏘련공산당중앙위원회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흐루쑈브의 반쓰딸린책동은 쓰딸린서거 3돐인 1956년 3월 5일을 계기로 당권을 발동하여 쓰딸린을 추모하는 일체 기념행사들을 금지시킨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수령을 모독하는 흐루쑈브의 배신행위는 1961년 10월 쓰딸린시신을 들어내여 화장해버린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흐루쑈브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물질경제적요인만을 적극 내세웠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

그러나 흐루쑈브는 집권후 정치사상교양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쏘련경제의 비약적발전과 인민생활수준의《급격한 향상》에 대해서만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흐루쑈브는 물질경제적측면만을 절대화하면서 쏘련공산당을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에 맞지 않게 경제부문에만 치중하는 일종의 《경제당》으로 전락시켰다.

흐루쑈브에 의하여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사상적요인이 무시되고 물질경제적요인만이 강조됨으로써 쏘련사람들속에서는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사상이 깊이 뿌리뻗게 되였다.

흐루쑈브는 대외적으로 《평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제국주의와 손을 잡는 로선에 매달렸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를 포함한 모든 진보적력량에 대하여 극도의 적의감을 가지고 대하는 극악한 반동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루쑈브는 군대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와 군비경쟁을 그만두면 그만큼 《인민을 위한 재부를 더 생산할수 있다.》고 줴쳤다.

1956년 2월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평화적공존》정책을 쏘련의 대외활동의 총로선으로 선포하고 100만명이상의 쏘련군대를 대폭 축감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사무력을 축소한 결과 1962년 10월에 미제에 의해 발생한 까리브해위기때에 쏘련은 세상사람들앞에서 커다란 수치를 당하였다.

쏘련공산당은 1964년 흐루쑈브일파를 숙청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시기에도 수정주의사상의 잔재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배신자인 고르바쵸브에 의하여 재생되여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력사의 수치를 가져왔다.

2.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반혁명적반란

흐루쑈브의 수정주의책동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도 혹심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각국의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의 회의를 여러차례 벌려놓고 쏘련당의 수정주의적로선을 내

리먹였는가 하면 《쩨브》와 와르샤와조약기구를 통하여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통제하면서 《제왕》노릇을 하였다.

동유럽나라들의 당과 국가의 지도부가 쏘련과의 관계를 자주성에 기초하여 가지지 못하고 사대주의를 하다나니 쏘련의 수정주의가 동유럽나라들에 그대로 침투되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는 흐루쑈브의 수정주의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엄중한 난관들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그것은 뽈스까, 마쟈르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나라들에서 일어난 반혁명적반란을 놓고 잘 알수 있다.

1956년 6월말 미제의 부추김밑에 뽈스까의 국내반동들은 일부 타락한 로동자들과 학생들을 끌어들여 뽀즈난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놈들은 자본주의제도를 복귀하려고 꿈꾸면서 습격과 파괴, 학살과 방화를 일삼았다.

그러나 원쑤들의 목적은 실현될수 없었으며 뽀즈난반란은 제때에 진압되였다.

마쟈르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도 사회주의전취물을 말살하고 지주, 자본가제도를 복귀하기 위하여 반혁명적반란을 일으켰다.

마쟈르에서 반혁명적반란이 일어나게 된것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수정주의자들이 계급투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마쟈르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자본주의적인 정책들을 적극 장려한데 있었다.

1953년－1954년에 총리자리에 앉아있던 수정주의자 임레 나지와 그 일당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고 제국주의국가들과의 《평화적공존》을 떠들면서 자본주의제도를 세우려고 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마쟈르에서 자본주의적인 부농경리를 적극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마쟈르의 모든 부문에서 자본주의적요소가 활개를 치며 되살아나고 이미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마쟈르의 수정주의자들은 부르죠아사상이 들어올수 있도록 제국주의자들에게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양식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하였다.

마쟈르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수정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임레 나지도당의 책동으로 마쟈르의 정세가 혼란상태에 빠지게 된것을 기회로 1956년 10월 하순 마쟈르의 반동들을 적극 사촉하여 반혁명적반란을 일으키였다. 이 반란에는 이미 혁명에 의해 전복된 자본가, 지주, 파쑈분자들과 자본주의에 환상을 가진 일부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가담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무기와 탄약을 반란자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자유유럽방송국》을 비롯한 각종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반공선전에 미쳐 날뛰였다.

반란분자들은 공산당원들과 핵심로동자, 열성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을 습격파괴하였으며 정권기관과 문화기관들을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반혁명적반란속에서 정권을 쥔 임레 나지도당은 이 반란을 계기로 부르죠아다당제의 실시, 와르샤와조약기구(당시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군사기구)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미, 영, 프제국주의자들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다.

혁명의 전취물이 위험에 처한 이 준엄한 시각에 인민대중은 반동들의 반란을 저지시키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마쟈르의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마쟈르에 있던 쏘련군대와 함께 반혁명적반란을 철저히 진압함으로써 마쟈르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였다.

이밖에도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 동부도이췰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반혁명적책동들이 있었으나 혁명적로동계급에 의하여 이 반란들은 제때에 진압되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의 반혁명적반란들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고 수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당의 통일단결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내외원쑤들이 준동하게 되고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제3절. 쏘련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

1. 쏘련에서 《개혁》, 《개편》정책의 실시와 사회주의의 좌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였으며 얼마전에는 쏘련이 해체되여 자기 존재를 끝마쳤습니다.》

1985년 현대수정주의자이며 사회주의배신자인 고르바쵸브가 음모적인 방법으로 쏘련공산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서부터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개혁》, 《개편》정책이 실시되였다.

《개혁》, 《개편》정책이란 사회정치활동에서 다당제를 받아들이고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계획경제대신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사상문화분야에서 《자유화》, 군대의 비정치화, 비사상화를 실시한다는것이다.

다당제는 각이한 사상과 강령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활동하면서 선거경쟁을 벌려 여기에서 이긴 당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것이다.

다당제의 반동적본질은 이것이 부르죠아독재를 민주주의로 위장하기 위한 교활하고 기만적인 현대제국주의국가들의 전형적인 정당제도라는데 있다.

사회정치생활에서 다당제를 받아들인다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인 공산당과 로동당이 국가기관, 사회단체들에 대한 령도를 포기한다는것을 말한다.

쏘련에서는 1988년 6월에 사회생활에 대한 당의 령도를 포기한다고 선포했으며 1990년에는 쏘련헌법에서《쏘련공산당은 사회의 지도적 및 향도적력량이다.》라고 규정한 기본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와 동시에 쏘련에서는 다당제가 도입되여 각이한 명칭과 강령을 가진 정당, 사회단체들이 수많이 조직되였다. 새로 나온 정당, 사회단체들은 집권당인 공산당과의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서로 야당련합을 형성하였다. 선거결과 공산당은 정권에서 밀려나고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정권을 장악한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허물고 자본주의적시장경제를 적극 내세웠다.

시장경제라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리윤을 많이 얻는것을 생산의 목적으로 삼고 시장에서 무제한한 자유경쟁을 벌리도록 한다는것이다.

시장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불평등과 대중적실업 등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경제방식이다.

쏘련에서는 1990년에 소유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승인한《쏘련소유제법》이 채택된 결과 모든 부문에서 국가적 및 협동적소유가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였다.

시장경제가 도입된 결과 자유경쟁을 통하여 수많은 기업소들이 파산되고 물건값이 엄청나게 뛰여올랐으며 지난날에는 볼수 없었던 실업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사상문화분야에서도 개인리기주의와《자유화》를 도입한 결과 범죄가 성행하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였다.

또한 국방분야에서도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가 실시되였다.

쏘련에서는 군대를 비정치화 한다고하면서 군대내에서 당의 활동을 중지시켰으며 군비와 군대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와 함께 외교분야에서는 국제관계의 비사상화로선에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서방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를 거듭하였다.

쏘련에서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대외정책분야에서의 《개혁》과《개편》은 가맹공화국들의 분립운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발뜨해연안 3개국에서 민족분립운동이 벌어졌으며 그가운데서도 리뜨바가 앞장에 섰다. 리뜨바가 분립을 선언한데 이어 에스또니야와 라뜨비야도 쏘련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발뜨해연안의 3개국은 1990년에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후 몰도바,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쟌 등 수많은 가맹공화국들이 쏘련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다.

1991년 말에는 쏘련에서 세번째로 큰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포하였다. 쏘련의 붕괴가 명백해지자 로씨야련방정부도 독립의 길로 나갔다.

이리하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쏘련)은 1991년 12월 25일 70년간의 자기의 존재를 마치고 해체되였다.

2.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개혁》, 《개편》정책의 실시와 자본주의복귀

쏘련에서 《개혁》정책이 나온데 뒤이어 동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개혁》, 《개편》정책이 도입되였다.

1980년대말에 동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당과 정부의 지도부가 반사회주의자들로 교체되였으며 그들은 자본주의적인 《개혁》, 《개편》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이 말살되였으며 다당제에 의하여 각양각색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수많이 출현하였다.

다당제가 나온지 1년도 못되여 로므니아에서는 민족자유당, 그리스도교민주민족동맹, 사회민주당 등 80여개의 당들이 나타났으며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130여개의 당들이 출현하였다.

1990년대 초에 대부분의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이른바 《자유선거》가 실시되였고 선거의 결과 반동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이전 동부도이췰란드에서는 우익정당인 그리스도교민주동맹이 집권하면서 1990년 10월 서부도이췰란드에 먹히우는 방법으로 병합되였다.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도 1993년에 체스꼬와 슬로벤스꼬로 갈라져 각각 독립국가로 되였다.

오늘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의 파산, 실업자의 증대, 민족간의 분쟁, 무서운 범죄 등으로 인민들이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이러한 사태를 놓고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과 자본주의의 복귀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더우기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될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위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으로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기때문이다.

제2장.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의 격화

제1절. 침략과 전쟁의 원흉 미제

1.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으로 등장한 미제의 침략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다.

세계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파쑈도이췰란드와 일본, 이딸리아와 같은 전패국들이 치명적타격을 받았을뿐아니라 전승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국가들이 전패국들에 못지 않게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전쟁전기간 미국본토에는 단 한발의 포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미제는 2차대전 전기간 오히려 자기의 동맹국은 물론 적대국들에까지 많은 군수물자를 팔아 자본주의세계 금보유량의 4분 3을 긁어모았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격히 비대해진 미제는 전후 자본주의세계를 정치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자기 통제밑에 넣게 되였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세계의 패권을 틀어쥐고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악랄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무엇보다먼저 원자탄을 휘두르면서 세계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세계혁명력량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날강도적인 침략정책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침략적군사쁠럭을 조작하는것이였다.

미제는 1949년 유럽자본주의나라들을 긁어모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조작하였으며 1954년에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세아토)를, 1955년에는 바그다드조약기구 등 세계도처에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을

조작하였다.

침략세력을 최대한으로 규합한 미제는 세계의 90여개 나라에 3 400여개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을 설치하고 여기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군사무기로 장비한 미제침략군을 수많이 배치해놓았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50년간에 세계 여러 지역에 근 300여차례나 침략군을 파견하였는데 전후 오늘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30여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에 미제가 끼여들지 않은 전쟁은 단 하나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격렬한 전쟁이였던 조선침략전쟁을 비롯하여 윁남, 라오스, 캄보쟈에 대한 침략, 빠나마, 그레네이더에 대한 날강도적강점, 꾸바와 니까라과에 대한 침략도 모두 미제에 의해 감행되였다.

또한 이미 수십년동안 계속되고있는 아랍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페르샤만전쟁, 이라크와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폭격도 모두 미제에 의하여 감행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대전후 국제반동의 원흉으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군사적위협공갈과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독립후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원조》와《공동개발》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그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막대한 재부를 략탈하였다.

미제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와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와 사상문화적와해책동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매수 또는 위협공갈하였다. 한편 군사정변을 조작하여 친미괴뢰정권을 세우는 등 온갖 비렬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문화적으로 온갖 악랄한 침략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2. 최후발악하는 미제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 계획으로서 1950년에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미국력사상 가장 큰 참패를 당함으로써 멸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림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대참패를 당한 미제는 1959년 꾸바혁명의 승리, 1975년에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의 승리, 1979년의 이란이슬람교혁명과 니까라과혁명의 승리 등에 의하여 련속 타격을 받아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1980년대에는 아이띠의 듀발리에와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같은 친미독재자들이 인민들의 항거앞에 꺼꾸러졌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전면적인 파산에 직면하게 되였다.

미제는 세계제패의 중요거점으로 삼아오던 해외군사기지들에서도 저주와 규탄을 받고 쫓겨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리비아에서 미제의 공군기지가 쫓겨났으며 자기의 동맹국인 프랑스에서도 쫓겨나고 필리핀에 있던 해군기지과 공군기지에서도 쫓겨나고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미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보려고 최후발악하면서 여전히 세계제패야망을 버리지 않고 그 출로를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미쳐 날뛰였다.

미제는 1991년 1월 이라크를 반대하는 만전쟁을 도발하였다.

오래전부터 원유가 많은 페르샤만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미제는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였다는것을 구실로 이라크를 반대하는 군사적공격인 사막폭풍작전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이라크의 침공을 막는다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9만 5 000여명의 침략군을 들이밀었으며 《B－5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폭격기들을 만지역에 투입하였다.

또한 항공모함《아이젠하워》호와 핵항공모함《인디펜던스》호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군함들을 페르샤만지역에 들이밀었다.

그리하여 1월 중순까지 만지역에서 4 500여대의 땅크와 장갑차, 2 800여대의 비행기, 항공모함 5척을 포함한 150척의 함선과 각종 포 1 450여문(핵탄두 545기)이 집결되였으며 그 병력수는 무려 49만에 달하였다.

한편 미제는 만전쟁을 국제화 한다고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추종국가군대까지 동원하였다.

전쟁이 개시되기 직전에 만지역에 전개된 다국적무력의 총 병력수는 미군 49만을 포함하여 73만 2 000여명에 달하였다.

1월 17일 드디여 미제는 100여기의 순항미싸일을 발사하는것으로부터 만전쟁을 개시하였다.

전쟁이 시작되여 1주일동안에 미제는 이라크에 1만 2 000여회의 공중폭격과 2 000여기의 미싸일을 퍼붓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2월 23일까지 38일동안에 미제와 다국적군의 비행대는 11만회나 떠올라 9만t의 폭탄을 투하하여 이라크의 여러 대상물들을 재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미제는 만전쟁기간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방사성을 가진 렬화우라니움탄까지 사용하는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미싸일공격으로 이라크의 수많은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죽고 평화적시설물들이 재더미로 변하였다.

폭격과 포격으로 이라크의 대상물들을 거의다 파괴한 미제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만전쟁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으로 하여 미제는 더 전쟁을 확대할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만전쟁은 한달 반만에 끝나게 되였다.

미제는 또한 1999년에 이전 유고슬라비아련방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78일간이나 이 나라를 폭격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죽이고 온 나라를 페허로 만들었다.

미제는 이밖에도 국제법을 무시하고 렬화우라니윰탄과 송이폭탄, 흑연폭탄 등을 대량적으로 투하하였으며 군사대상물이 아닌 수백개의 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평화적시설물들까지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다.

참으로 페르샤만전쟁과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야만적폭격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 흉악한 살인마, 세계인민들의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미제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지만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제2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

1.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앞길에는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나라를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변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장차 일본을 아시아에서의 혁명운동과 사회주의력량을 반대하는데 써먹을것을 타산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전후에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키는데로 나아갔다.

1945년 9월 일본을 단독강점한 미제는 무엇보다도 마땅히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일본《천황》을 비롯한 수많은 전범자들을 재판에 내세우지 않았다. 미제는 1948년 11월 세계여론이 두려워 마지 못해 7명의 수급전범자들만 교수형에 처하고 가두어둔 수많은 전범자들은 체계적으로 석방하였다.

미제는 군국주의적반동기구도 그대로 두고 반동정권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미제는 또한 경제분야에서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지반인 독점자본도 해체하지 않고 보존하였다.

처음에 해체대상으로 지정한 83개 회사가운데서 실지 해체한것은 29개에 불과하였다.

미제는 또한 군국주의의 재생을 적극 뒤받침하였다. 1948년에 일본에는 소방대가 무려 20만명이나 되였는데 이것은 바로 위장된 침략무력이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대일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나라들의 참가도 없이 1951년 9월 일본과 대일단독강화조약과 군사동맹조약인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참전국전체와 일본간의 강화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간의 단독강화였으므로 비법적인 《조약》이였다.

그럼에로 불구하고 미제는 《조약》의 유효성을 떠들며 일본군국주의가 또다시 국제무대에서 합법적으로 날뛸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일본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이른바《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동맹군의 탈을 쓰고 일본땅에 계속 주둔해있을수 있게 되였다.

미제에 의하여 급속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조선인민앞에 또다시 씻을수 없는 죄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독점체들은 조선전쟁 3년동안에 11억US$의 특수주문을 받아 군수품생산을 적극 다그쳤다.

일본독점체들은 장거리포, 반땅크포, 땅크, 장갑차, 포탄 등을 대량 생산하고 비행기, 함선 등 군수기재들을 수리하여 미제에게 보장하여 줌으로써 일본을 미제의 《극동병기창》으로 전변시켰다.

전시 《호경기》를 만난 일본의 공업생산은 조선전쟁기간에 170％로 높아져 제2차 세계대전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일본독점자본은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의 생산과 수리로 《황금의 소나기》를 만나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팽창되였다.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막대한 군사장비를 생산 또는 수리해주었을뿐아니라 전령토를 미제의 조선침략을 위한 병참기지, 작전기지, 공격기지, 후방기지로 내여맡겼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직접 일본수송선들을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녹아난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패잔병들을 남조선으로 빼돌려주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세균전과 각종 작전지휘에 가담하고 수만명에 달하는 일본놈들에게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군복을

입혀 조선침략전쟁마당에 내몰았다.

이와 같이 일본군국주의는 패망직후부터 조선전쟁까지의 짧은 기간에 급속히 재생재무장되였으며 벌써 이때부터 미제의 아시아침략에 깊숙이 끼여들기 시작하였다.

2.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력의 증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급격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마침내 아시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현시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군사대국이 될 야망을 품고 침략무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놈들은 침략무력을 꾸리기 위하여 군사비를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방위력정비계획》(1996년-2000년)을 실현하는데 25조￥이라는 전례없는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는 군사비지출에서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방대한 군사비를 가지고 침략무력을 급속히 강화하였다.

수십만명의 병력으로 늘어난 일본《자위대》는 그의 대부분이 장교와 하사관으로 구성되였으며 필요하면 짧은 시간에 수백만으로 늘일수 있게 되였다.

일본《자위대》는 수적으로만 늘어난것이 아니라 륙해공군이 모두 최신무기로 장비되였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450여척의 각종 함선을 가지게 되였으며 항공대는 각종 군용기 1 700여대를 가진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

일본군수공업은 자체로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으며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핵연료들도 비축하여놓고있다.

3.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또다시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다.

대외침략의 첫 대상을 우리 나라로 정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였다.

미제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일본을 돌격대로 써먹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침략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1965년 6월 남조선괴뢰도당과 침략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침략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사관, 령사관, 공보원 등과 같은 기구들을 꾸려놓고 남조선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날뛰고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과 상품을 밀어넣고 남조선을 일본의 상품판매시장,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고 남조선경제의 주요부문을 손아귀에 틀어쥐였다.

일본군국주의와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군사적결탁도 강화되고있다.

남조선괴뢰군과 일본《자위대》사이의 결탁은 미제의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의하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에 따라 남조선괴뢰군과 일본《자위대》는 조선반도의 유사시를 가상하는 침략계획까지 짜놓고 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반공화국소동을 벌릴 때마다 선참으로 그에 가담하여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며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죄하고 배상하려고 하지 않고있으며 국제적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뻔뻔스럽게도 지난날의 침략력사와 죄과를 외곡하고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뿐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원조》의 미명하에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강화하고있다.

해외에 침투된 일본의 다국적기업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널려있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는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자본수출과 상

품수출에서 미제와 대등하거나 일부 부문들에서는 앞서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제를 등에 업고 군사대국이 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이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 000mile해상방위권》을 주장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침략준비를 적극 다그쳐왔다.

최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무력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있던 일본헌법도 뜯어고치고 이른바 《유엔평화유지군》의 간판밑에 《자위대》무력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 파견하고있다.

미제에 의해 모두 감행된 1991년 초의 페르샤만전쟁과 1999년에 있은 이전 유고슬라비아련방에 대한 78일간의 무차별폭격때에도 그리고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사건을 구실로 미제가 도발한 아프가니스탄전쟁시기에도 일본반동들은 세계제패를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남먼저 추종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한 지난날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민의 흉악한 원쑤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러므로 현시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제3절.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치렬한 세력권쟁탈전

1. 모순과 갈등의 격화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나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재편성되였고 그들의 결탁이 강화되였었다.

그러나 제국주의나라들의 결탁은 점차 깨여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나가려하기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사이에 모순이 커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을 때 한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약화되였던 제국주의렬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되살아난 이 나라들은 미제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의 세력권을 넓히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와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사이에 서로 물고뜯는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였다.

특히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도이췰란드가, 아시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전횡과 독단에 엇나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경제력이 점차 회복된 프랑스제국주의는 자기의 경제력과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군사적우위를 리용하여 유럽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였다.

도이췰란드도 패전국이기는 하였으나 전후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경제력을 빨리 회복하였다.

따라서 경제대국이 된 도이췰란드도 유럽에서 패권을 노리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는 다같이 유럽에서 패권을 쥐려고 하였으나 2차대전후 유럽에 깊숙이 뿌리 뻗은 미제국주의세력을 단독으로 밀어내기에는 힘이 모자랐다.

그러므로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는 유럽에서 미국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공통된 목적으로부터 손을 잡게 되였다.

1958년에 도이췰란드와 프랑스는 이딸리아, 벨지끄, 네데를란드를 끌어들여 유럽경제공동체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유럽경제의 통합을 다그쳐서 유럽인들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독점자본의 침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되였다.

1960년대에 미제와 유럽나라들사이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와졌다.

미제는 남부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힘이 모자라게 되자 유럽《동맹국》들도 이 전쟁에 가담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느 나라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가《동맹국》들속에서 그의 위신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가장 로골적으로 미제에 등을 돌려댄것은 프랑스제국주의였다.

프랑스정부는 1966년에 《나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였으며 프랑스땅에 있던 나토군사령부와 서유럽주둔 미군사령부를 내쫓았다.

1990년대초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미

제와 유럽렬강들사이의 대립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 걸쳐 더욱 날카로와졌다.

1990년에 서부도이췰란드가 동부도이췰란드를 병합함으로써 도이췰란드의 정치, 경제, 군사적잠재력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이때부터 유럽에서 도이췰란드의 지위가 프랑스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도이췰란드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때인 1991년 12월에 15개 나라가 참가한 유럽수뇌자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뜨리흐뜨조약이 체결되였다.

그후 유럽경제공동체는 이름을 유럽동맹으로 고치고 유럽통합을 적극 밀고나갔다.

2. 치렬한 세력권쟁탈전

유럽동맹에서 축을 이루고있는 도이췰란드와 프랑스는 유럽의 군사적통합을 위하여 프랑스—도이췰란드공동군단을 꾸리고 여기에 주변나라들을 끌어들여 유럽군단으로 개편하였다.

1995년 11월 유럽군단은 모든 군사행동을 미제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던 종전의 자세와 립장에서 벗어나 10일간에 걸쳐 군사연습을 진행함으로써 유럽의 군사적독자성을 보여주었다.

랭전이 종식된 후 아프리카를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넣기 위한 미제와 유럽렬강들사이의 쟁탈전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최근시기 미제는 아프리카나라들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기 위한 책동을 각방으로 강화하고있다. 반면에 서유럽나라들은 아프리카에서 세력권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모로 획책하고있다.

최근시기에 유럽동맹나라들의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진출이 강화되고있다.

경제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경쟁하고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경제적위기를 극복하자면 무진장한 자원이 있고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아시아의 시장을 장악하여야 한다는것이 유럽나라들의 립장이다.

이러한 기도에서 유럽나라들은 미국과 일본에 뒤지지 않으려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진출을 강화하고있다.

1996년에 있은 아시아유럽상공업회의, 유럽—동아시아경제수뇌자회의 등 여러 갈래의 고위급경제회합을 진행하는 등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침투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이처럼 유럽동맹은 미제와 맞서 세력권쟁탈전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오늘 시장쟁탈을 둘러싸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날카로와지고있다.

미제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세계를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일극세계》로 만들려 하고있지만 미제의 전횡을 반대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극화의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바빠맞은 미제는 세계를 무력으로 위협할 목적으로 미싸일방위체계라는것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전세계인민들의 저주와 규탄, 지어는 제국주의동맹국들속에서까지 배격을 받고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의 치렬한 세력권쟁탈전으로 하여 제국주의우두머리로서의 미제의 처지는 날로 더욱더 어려운 곤경에 빠지고있다.

제3장. 세계적판도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 사회주의재건운동

제1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위대한 주체사상의 연구보급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높은 칭송

오늘 세계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만민의 전설적영웅으로,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혁명의 수령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20세기 인류가 낳은 위대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높은 칭송의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치인

들속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전 꼬스따 리까 사회당위원장은 《만민의 전설적영웅》이라는 글에서《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는 전설적영웅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지니시였다. 전설적영웅이란 수천가지의 칭호와 맞먹는 존칭이며 비바람속에서 피와 땀으로, 로고와 사랑과 용감성과 지혜로 지니시게 된 존칭이다. 지구상의 여러곳에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끓어넘치는 흠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이라고 높이 부르고있다.》고 썼다.

전 칠레공화국대통령 알옌데는《**김일성**동지는 지난날에는 말할것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 볼수 없는 인류의 특출한 영재이시다.》라고 하였으며 어느 한 나라의 벗은 자기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김일성**주석님만은 하느님처럼 믿는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높은 칭송의 목소리는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고있는 제국주의나라 정치인들속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이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는 주체83(1994)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한번 만나뵙고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여 《**김일성**주석님은 미국 건국사에 이름을 남긴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은 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께 수여해드린 훈장과 명예칭호, 선물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세계의 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는 그이께 180여개의 최고훈장과 메달을 비롯한 명예박사, 명예교수 등 각종 명예칭호를 수여해드리였다.

그리고 세계의 100여개 나라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을 480여개의 거리, 기관, 단체들에 모시였다.

그리하여 지구상 여러 나라들에 **김일성**거리, **김일성**학원, **김일성**부대 등이 수많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김일성**화가 태여났다.

뿐만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성을 칭송하여 지성어린 선물을 드리였는데 그 수는 무려 16만 5 700여점에 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은 대원수님의 서거를 계기로 더욱 뚜렷이 표현되였다.

주체83(1994)년 7월 세계인민들은 20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잃은 가장 비통한 심정을 안고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조의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애도기간 우리 나라에 세계의 166개나라 국가지도자들과 정당지도자들로부터 무려 3 480여건에 달하는 조전과 3 300여개의 화환을 보내여왔다.

이 기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물론 유엔본부청사에도 조기를 띄우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세계 120여개 나라의 700여개 출판보도물과 200여개의 통신, 방송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소식을 전하면서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였다.

참으로 전세계인민들이 높이 우러러 따르며 흠모하는 만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세계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세계인민들은 무엇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의 영재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세계사회주의위업의 밝은 앞날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하기에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로작에 담겨진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그 진리성에 끝없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꽁고로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받아안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고 전략가이시다. …탁월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를 모시고있기에 세계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로씨야의 한 정치인사도 《력사는 이미 **김정일**동지를 21세기를 대표하는 만민의 령도자로 추대하였다. 조선의 운명뿐아니라 세계의 운명이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였다.

세계인민들은 또한 만능의 보검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쟁책동에 단호한 타격을 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예지와 령군술에 대해서도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1993년 3월 미제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은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나라를 타격하려고 시도하였었다.

온 세계가 세계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조선과의 대결이 어떻게 될것인가를 긴장하게 주시하던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전시상태의 선포로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으시고 적들의 강경자세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시는 무비의 담력으로 적들을 호되게 답새기시였다.

하기에 민주꽁고대통령은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천재적 예지와 무비의 담력, 령군술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최상의것이기에 미국과 그 추종분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이전 쏘련국방상 야조브는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과정에 그이의 위인상에 완전히 감동되였다.

력사에 이름있는 명장들을 보면 지상전에는 밝으나 해전에는 어둡고 또 작전에는 능하나 무장체계와 그 사용법에는 그렇지 못한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비상하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반적무력에 대한 통솔권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작전전술로부터 무장장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군종, 병종, 전문병분야까지 환히 꿰뚫고계시였던것이다.

하기에 야조브는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김정일**동지처럼 정치적령수로서의 풍모를 완벽하게 갖추고있으면서도 령장으로서의 자질까지 겸비하여 문무에 정통한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

의 온갖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나가시는 천출명장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한것이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전세계는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인류자주위업의 걸출한 사상리론가, 령도의 거장을 잃은 크나큰 슬픔에 잠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너무도 비통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한 전세계인민들은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조의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애도기간 중국, 로씨야, 꾸바, 수리아, 캄보쟈, 네팔, 에티오피아, 니까라과, 메히꼬 등 12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친선 및 련대성조직대표들이 3 000여건의 조전을 보내여왔으며 여러날동안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추도회, 추도식 등 여러가지 추모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꾸바에서는 3일간의 공식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전국의 공공기관, 군사기관들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학교들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타이에서는 3일동안 모든 정부청사들, 국영기업체들, 재외대표부들에 조기를 게양하였으며 캄보쟈왕궁에서는 국왕기로 조기를 띄웠다.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유엔본부와 제네바유엔사무국을 비롯한 유엔기구청사들에도 조기가 드리워졌으며 유엔총회 제66차 전원회의 참가자들과 유엔식량농업기구공무원회의 참가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였다.

애도기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무려 4 100여개의 화환과 꽃바구니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과 **김일성**광장,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 모신 그이의 태양상, 초상화에 진정되였다.

또한 중국과 로씨야, 이란, 꾸바, 영국,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적도기네, 마쟈르 등 세계 150여개 나라의 1만여개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종전의 외국국가수반의 조의행사보도전례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속보로 취급하면서 련일 특집하였다.

우리는 온 세상 인민들이 그처럼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긍

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 **김일성**화가 태여나기까지

주체54(1965)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 수카르노대통령이 보고르식물원에서 새로 육종한 독특한 꽃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보여드리면서 **김일성**화로 부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후 식물원원장은 여러해동안 이 꽃의 재배기술을 완성하는데 온갖 열정을 다 바쳤다.
그는 생의 마지막에 《**김일성**화, 나는 이 꽃을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 드리며 이 꽃이 주체의 조선에서 무성하게 자라 아름답게 만발하며 영원히 조선의 꽃으로 피여나기를 바랍니다.》라는 유언을 글로 남기였다.
그후 식물원원장의 아들과 원예가들이 그의 소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인도네시아방문 10돐을 맞으며 주체64(1975)년 4월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삼가 이 꽃을 드리였다.

※ 불멸의 꽃 **김정일**화

전세계인민들이 그처럼 우러러따르며 높이 칭송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위대성에 감동된 일본의 가모꽃창포원 주임 가모 모도데루는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 반드시 시대의 꽃으로 피여나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김정일**화 육종사업에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리하여 그는 20여년전부터 온갖 심혈을 기울여 육종해오던 진귀한 꽃을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없게 하기 위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실수 있게 완성하였다.
그는 주체77(1988)년 2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46돐을 맞으며 이 꽃을 그이께 삼가 올리였다.

3. 세계적판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비상한 견인력,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 수억만사람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이 날로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그에 따르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출현하게 되였다.

그 첫 조직은 주체58(1969)년 4월 말리고등사범학교 교원, 학생들이 무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였다.

그후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나라들에서 수많이 무어졌다.

이 연구조직들에는 여러 나라 정치인들, 박사, 교수들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수많이 망라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세계적규모에서 활발히 전개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나라별 또는 대륙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이리하여 주체67(1978)년 2월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첫 대륙별조직으로 출현한데 이어 1980년—1985년사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지역들에 각각 대륙별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전세계적인 국제기구도 조직되였다. 주체67(1978)년 4월 일본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대회가 열리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주체83(1994)년말 세계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4개의 지역연구소, 27개의 전국위원회와 1 000여개의 연구조직들이 무어졌으며 그 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1990년대초부터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던 이전 쏘련지역과 동유럽나라들에서도 수많은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였다.

로씨야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씨, 뽈스까 등 많은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재생의 기치는 오직 주체사상밖에 더는 없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조직을 수많이 뭇고 그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한 나라별, 대륙별조직들이 무어져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게 되면서 이에 따라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였다.

주체77(1988)년 한해동안에 80여개 나라들에서 1 900여회에 걸쳐 진행된 주체사상토론회, 주체71(1982)년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 주체85(1996)년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체사상국제토론회 등 수많은 국제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뿐만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여러가지 출판물과 신문, 방송, 텔레비죤, 도서관과 서점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세계혁명의 걸출한 수령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흠모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제2절.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

1. 력사적인 평양선언의 채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으로 하여 의연히 곡절을 겪고있지만 어제날의 쓰라린 력사에서 교훈을 찾고 점차 재생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20세기에 탄생하여 전진하던 사회주의는 1980년대말부터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였다.

세계사회주의위업앞에는 원쑤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들고 새로운 진로를 따라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운명과 인류의 전도와 관련되는 이 중대하고도 절박한 문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사회주의위업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재건과 세계사회주의운동발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제반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투쟁강령을 요구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평양선언채택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1992년 4월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세계 수많은 혁명적당들이 참가하여 자주시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강령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되였다.

평양선언은 사회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리상사회이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밝히였다. 그리고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지키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련대성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평양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세계의 모든 혁명적당들이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투쟁강령을 가지게 되였다.

평양선언이 발표되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재생을 알리는 위대한 공산당선언》, 《사회주의재건의 전투적기치》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평양선언의 거대한 힘은 선언이 채택될 당시 70개의 정당들이 이 선언에 서명하였다면 1999년에는 250여개 정당들이 이 선언에 서명한 사실이 잘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의연히 진보적인류의 지향으로 되고있기때문에 세계혁명적당들이 평양선언을 강령으로 삼고 사회주의를 위한 새로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2. 활발히 전개되는 사회주의재건운동

평양선언이 나오자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는 사회주의리념에 대한 동요가 사라지고 세계혁명적당들에서는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우선 사회주의재건을 목적으로하

는 수많은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새로 나왔다.

이전 쏘련지역에서만도 로씨야련방공산당, 우크라이나공산당, 벨라루씨공산당을 비롯한 많은 당들이 재건되고 1997년 8월에는 22개의 공산당대표들이 모여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할데 대한 전망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는 우리 시대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민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로씨야, 우크라이나, 뽈스까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여 사회주의재건운동을 주체사상연구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고있다.

공산당과 진보적세력들은 사회주의를 재생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선배들을 존중하고 내세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잘 알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재건운동은 또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령역에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우크라이나공산당 등 여러 진보적당들은 국회에서 사회주의재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으며 체스꼬에서도 20여만명의 당원을 망라한 공산주의적정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가 좌절된 여러 나라들에서뿐아니라 지구상의 여러곳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1990년말에는《현정세와 정당들의 과업에 대한 아프리카지역 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997년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열린 혁명적정당들의 국제회의에는 40여개 나라의 80여개 정당, 투쟁조직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렇듯 평양선언은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커다란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현실은 평양선언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

에 의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사회주의운동의 대강이며 사회주의위업을 새로운 력사적진군의 궤도우에 올려세운 위대한 선언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고있다.